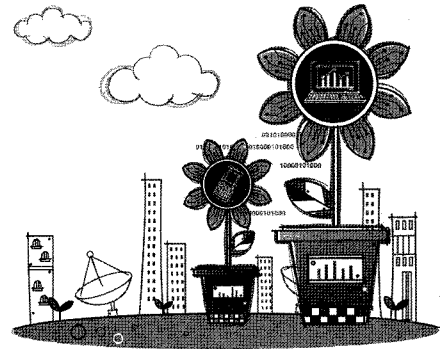


RFID 전자산업에 도입



RFID는 전파를 이용한 특성으로 철, 전자파 등의 간섭에 약해 그간 도입이 쉽지 않았던 철강, 전자산업까지 RFID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사람, 물품 등의 고유정보를 저장한 태그(Tag)와 무선으로 이를 인식하는 리더(Reader)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지식경제부는 '10년도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중 확산사업의 신규과제 주관 기관으로 포스코, LG 전자, 일동제약, 한국콜마, 성주디앤디, 엠씨트 등 6개사를, 검증사업의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CJ-GLS,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사를 선정하여 51억원(확산 44억, 검증 7억)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확산사업은 RFID/USN을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검증사업은 RFID/USN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중 RFID/USN기술의 시험·검증을 위한 사업이다.

신규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8개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19일까지(40일) 공고를 통해 접수된

14개의 기업에서 학계, 민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점수 60점 이상)된 후보기업 중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기업이다.

올해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의 특징은 그간 정부위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민간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의 범위를 기존의 50%에서 40%로 축소하는 대신 RFID/USN의 자발적인 도입 및 확산의지가 있는 지원대상 기업수를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온도, 오염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들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시설물, 교량 등의 안전관리, 기상관측, 화재 감지 등에 사용된다.

금년도 선정된 신규지원 과제는 철강, 전자, 제약, 패션잡화, 자동차, 물류, 에너지 분야 등의 과제로서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RFID가 도입된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열연, 냉연 제품 약 2백만개(연간 물량기준)에 RFID

태그를 부착하며 제철소와 철강제품을 유통·가공하는 17개의 협력사에서 실시간 재고관리, 위치관리, 검수관리 등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10월부터 생산되는 평판TV 전체 제품에 약 86만장의 태그를 부착하여 대리점에서 제품 판매시 상품정보 및 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TV외에도 모니터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약 590만장의 RFID 태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동제약은 올해 생산되는 의약품 2개 품목에 500만개의 RFID 태그를 부착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일동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 전체로 부착대상을 확대하여 약 천만개의 태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콜마는 올해에는 자사 제품 및 위탁받아 생산하는 의약품에 30만개의 RFID 태그를 부착하며, 내년에는 태그부착 대상을 천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주디앤디는 엠씨엠(MCM)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전문업체로 재고관리 및 진품확인 등을 위해 가방, 지갑, 벨트 등 패션잡화 전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엠씨트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로 내년까지 약 5만개의 RFID 태그를 시트 등에 부착하여 서열관리, 실시간 재고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결품손실을 방지하고 재고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CJ-GLS는 물류센터 내부에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기 위한 USN 노드를 구축하여 차량 출입관리, 물류자원 운영관리, 통제구역 관리 등에 활용하게 되며, 향후에는 전국 51개의 유통·물류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261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스마트미터, 콘센트 측

정기 등 USN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u-HEMS)을 시범구축하여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효율화로 세대당 15%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상기 지원과제들은 5월20일까지 과제별 사업계획서 보완 및 세부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5월24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의 3년차인 올해부터는 RFID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제약, 의류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파급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RFID 리더기가 장착된 휴대폰이 개발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사용영역(B2C)에서 RFID의 수요 증가가 RFID/USN 확산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중심의 RFID/USN 자생적 시장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RFID/USN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RFID/USN 산업의 육성인 것이다.

지원 분야는 u-IT 신기술 확산에서 RFID/USN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이다. u-IT 신기술 검증에서 RFID/USN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중 RFID/USN기술의 시험·검증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원조건에서 지원 범위는 총 과제비의 40%('09년 50%) 이내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한다. 과제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은 50% 이상 부담한다. 신규과제 예산은 51억원(확산 44억원, 검증 7억원)이고, '10년 총 예산은 130억원(계속과제, 부처지원과제 등 포함)이다. 사업기간은 확산사업이 최대 2년, 검증사업이 1년이다.